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애인에게 뭐든 주려는 여율이, 나랑 닮았죠”

미스에이 수지, MBC ‘구가의 서’ 액션 연기 첫 도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하는 점이 나와 비슷한 것 같아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굳힌 MBC 월화 사극 ‘구가의 서’에서...



‘미스에이’ 수지

그녀는 “시청자가 너무 많은 사랑을 줘서 여러 광고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지만 책임감도 많아진다.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표정과 동작이 제대로 안 됐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어요”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처음 하는 사극이어서 걱정이 많았어요”라면서 “역할을 하고 싶었고 열심히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최강치 역의 이승기에 대해서는 “생각과 비슷하게 너무 잘 생겨주고, 옆에서 도와줘서 연기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다”며 “촬영장 분위기도 활기차게 리드해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워했다.

잘 나가던 지상파TV 시청률 부진에 ‘허덕’

‘아빠 어디가’ ‘런닝맨’ 등 15% 밀들아 ... 시청층 자체 이탈 영향 커

지난 12일 예능 프로그램 MBC ‘일밤-아빠 어디가’와 SBS ‘런닝맨’이 기록한 시청률은 전국 기준(광고 제외) 14.6%였다.



MBC '일밤-아빠 어디가'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해당 시간대에서 이른바 ‘가장 잘 나간다’는 1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SBS '런닝맨'

20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일요일이던 지난 12일 두 편의 주말 드라마를 제외하고 전국 기준 시청률 20%를 넘은 프로그램은 전무했다.

5.8%로 좀처럼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전반적인 시청률 저하는 주말 예

극중에서 최강치가 이야기 전개상 답어의 신체를 접촉한 ‘나쁜선’ 해프닝에 대해서는 “나도 처음에는 대본을 보고 놀라긴 했다”면서 “대본에 충실했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고 여유롭게 웃어넘겼다.

최근 많은 광고의 모델로 나선 수지는 세간에서 ‘백옥소녀’라고 불리는 점에 대한 소감을 묻자 배역에 감정을 이입한 듯 답변 도중에 감작스럽게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시청자가 너무 많은 사랑을 줘서 여러 광고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지만 책임감도 많아진다.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최종하다.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미소지었다. 내년엔 성년이 되는 수지는 최근 남자 대학생 대상의 한 설문에서 ‘데이트하고 싶은 최고의 연예인’ 1위로 꼽혔다.

수당은 팬이 주목하는 ‘스타’지만 그의 바람은 어느 평범한 소년과 다르지 않다. “내년에 성년이 되면, 만약 그때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장미나 향수 같은 선물을 받고 싶어요. 또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로 놀러 가고 싶어요.”

Table with 3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3 columns: Age group, Fortune, and Luck number. Rows provide fortune tellings for different age groups.

TV 하이라이트

PM2.5 실태, 당국의 대응은? 재민이와 가인의 엽살여행



시사기획 창(KBS 1TV·21일 밤 10시) = ‘초미세먼지 PM2.5의 공습’편에서는 국내 PM2.5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당국의 대응상황을 살펴본다.

엄마 없이 살아보기(EBS TV·21일 오후 8시20분) = 엄마와 동생들을 뒤로하고 여행 길에 오르는 두 아이. 이번 엽살여행은 삼남매 중 맏이 재민이(8세)와 네 자매 중 둘째 가인이(8세)다.

글로벌 일자리 프로젝트(MBC TV·21일 낮 12시20분) = 일본의 글로벌 기업, 캐논! 이곳에 당당히 입사한 한국인이 있다.

취재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 시내 주요지점에서 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기준치의 4~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PM2.5 농도는 미국 뉴욕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시골박적 동생들 틈에서 벗어나 훌훌분한 마음으로 엽살 여행을 떠나는데... 할령 어느 마을, 고즈넉한 한옥 집에서 아이들을 맞아주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서울에서 온 어린 손님들이 반가운 환련, 무엇보다 해줘야 좋을지 걱정스러운 눈치다.

캐논 대륙의 예뻐동산이라 불리는 아프리카의 꽃 남아프리카공화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50선 5위! 그곳에 패기와 열정으로 뛰어든 한국인, 남아공 여행사 대표 진윤석(33세)이 있다.